

세계, “구제역과의 전쟁” 초비상

- 미국 · 캐나다 · 호주 등 일부 제외 전 세계 확산
- 세계 각 국 도축 · 수입금지 확대

- 홍보부 -

구제역 이 전세계로 확산, 미국 · 캐나다, 호주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전 대륙에서 발생되고 있어, 세계 각국이 대량의 가축 도살과 축산물 및 농산물 수입을 강화하며 구제역(口蹄疫)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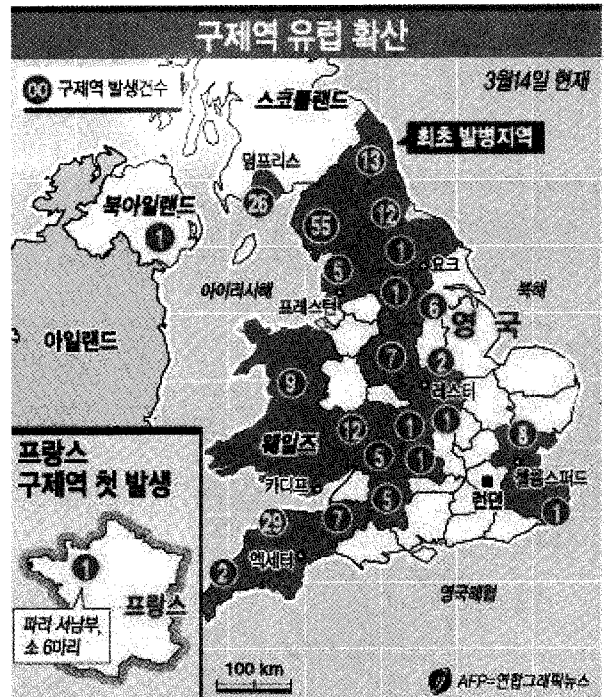
구제역 발원지인 영국을 위시한 유럽 각국은 매일 수만 마리의 가축 도살 계획을 발표하거나 실제 도축에 나서면서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으나 유럽대륙에 이어 중남미와 중동, 아시아 등에까지 구제역 발생이 속출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연합 및 아르헨티나에서도 3월 15일 구제역이 확인됐고 구제역 본산지인 영국도 16일 13건의 구제역 발생을 추가로 확인, 2월 20일 첫 구제역 발생이 확인된 이후 3월 16일 현재까지 영국에서 발생한 구제역은 총 264건에 이르렀다.

돼지, 소, 양을 합해 모두 5천500만마리의 가축을 보유하고 있는 영국에서는 20만5천마리가 구제역에 감염됐고 이중 75%가 이미 도

축됐다.

닉 브라운 영국 농무장관은 3월 15일 의회에서 “안전제일 정책”에 따라 잉글랜드 북부와 스코틀랜드 남부의 구제역 감염 농장 주변



3km 지역내에 있는 가축과 wild 풀, 노스햄턴, 롱타운 등 3개 시장을 거친 양들과 그들이 합류했던 양떼도 폐기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으로는 영국과 프랑스 등이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해 대량의 가축을 도살하면서 농민들은 정부의 처사에 불만을 표시하며 도축을 방해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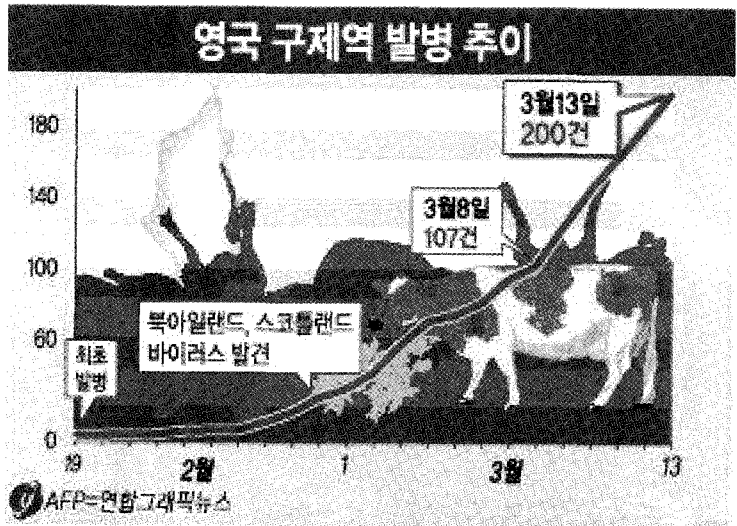
유럽 나라들의 구제역 확산 방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세계 각국은 유럽연합(EU)가축과 축산물 및 곡물에 대해 강력한 금수조치를 발동하면서 유럽으로부터의 구제역 진입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5일 현재 EU 회원국 축산물 및 농산물에 대해 금수조치를 내린 국가는 한국과 미국, 캐나다, 호주, 러시아, 헝가리, 모로코 등 100개국에 육박하고 있다.

미국과 캐나다 등은 구제역이 발생한 영국, 프랑스뿐 아니라 다른 15개 EU 회원국이 생산한 육류, 가축, 낙농품 등 관련제품에 대해 전면 금수조치를 내렸고 한국과 호주, 뉴질랜드, 노르웨이 등은 15개 회원국으로부터의 가축 및 고기제품 수입을 금지했다.

일본과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등은 프랑스로부터의 가축 수입을, 벨기에와 스페인 및 포르투갈은 프랑스산 고기제품과 가축 수입을 금지했으며 헝가리, 모로코, 튀니지 등은 벼짚, 사료 등을 통해 구제역이 전염될 수 있다며 EU 축산물 뿐 아니라 곡물수입도 금지했다.

이에 대해 EU는 구제역 발생이 확인된 영



국과 프랑스 외 EU 전회원국에 대해 축산물 금수조치를 내린 것은 부당할 뿐 아니라 특히 곡물까지 수입금지한 것은 지나친 처사라며 이를 불공정무역행위로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겠다고 나서 구제역문제가 무역마찰로 비화될 조짐도 보이고 했다.

미국의 금수조치로 EU는 한해 4억5천만 유로에 달하는 대미 축산, 유제품 수출길이 막히게 됐으며 거의 전 세계 국가들이 유럽산 가축이나 고기 및 곡물 수입 금지에 나서 EU가 입을 경제적 손실은 엄청난 규모에 이를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1. 영국 구제역 발생의 경제·사회적 파장

농민을 자처하는 찰스 왕세자가 구제역으로 피해를 본 농민들을 돕겠다며 50만파운드(약 10억원)를 쾌척한다고 발표한 날 농민들은 그가 농민들의 자살이 늘어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바로 그날 웨일스에서는 올해 54세의 농민 브라이언 오클리가 자신의 농장에서 목매 자살한 채로 아내 질리언에 의해 발견됐다. 구제역 사태 발생 이후 첫 인명피해로 기록된 사건이다.

두자녀를 둔 그는 최근 수년간 우울증을 알아오다 최근 구제역 발생으로 자신의 농장에 갇히다시피하자 우울증이 심해져 자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구제역이 지난 주말을 정점으로 수그러들 것이라던 당초 예상을 뒤엎고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기 시작하자 경찰은 이같은 농민들의 자살사태를 우려, 농민들이 갖고 있는 총기를 압수하기까지 했다.

구제역 발생 3주만에 이미 17만마리의 가축이 도축됐고 그 숫자는 시간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지난 67년 파동때 6개월 동안 43만마리가 도축됐던 것에 비해 훨씬 더 심각한 지경이다.

이달 초 경제기업조사센터(CEBS)는 지난 67년 파동 때의 피해규모가 현재 화폐가치로 환산할 경우 16억파운드에 달한다는 것을 바탕으로 이번 구제역 사태에 따른 농민들의 피해가 26억파운드(5조2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농가소득 감소라는 1차적 효과와 앞으로 2년여 동안 수출시장에 미칠 충격 등 2차적 효과를 포함한 수치라는 것이 이 센터의 설명이다.

또 전국농민연맹은 이번 달에만 해도 수출 금지로 인한 농민들의 피해가 양의 경우 2천 600만파운드, 돼지 1천700만파운드, 낙농제품 800만파운드에 각각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가축들의 가치하락이 월 400만파운드에 이를 것이며 가축들을 이동시키지 못해 다른 사람의 농장에 뒤야하기 때문에 추가로 들어가는 사료 및 수송비용도 400만파운드나 될 것으로 산출됐

다.

여기에 농가를 관광객 숙박에 활용하지 못하고 농장내 상점을 닫아야 하기 때문에 초래되는 손해도 매월 3천만파운드를 넘을 것으로 연맹은 보고 있다.

가축이나 육류 수송업계의 피해는 주당 700만파운드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가축 이동 금지조치로 3천500여명의 운전기사를 고용하고 있는 500여개 수송업체들이 차를 세워놓고 있기 때문이다.

영국의 농업부문 총수입은 지난해 27%가

하락한 것을 비롯, 광우병 여파가 미친 지난 5년간을 통해 모두 3분의2 이상이 이미 감소한 상태이기 때문에 구제역으로 인한 이같은 피해는 자칫 농민들을 재기불능의 상태로까지 몰고갈 가능성까지 우려되고 있다.

구제역이 날이 갈수록 전국 각지로 퍼져나가듯 영국의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에 미치는 영향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2 구제역 확산 추이를 보이는 프랑스

구제역이 영불해협을 건너 프랑스로 상륙하는 것을 막기위한 프랑스 당국의 필사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 3월 13일 프랑스 북서부 마옌에서 첫 구제역 사례가 발견돼 프랑스 전역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는 13일 마옌의 한 농장에서 소 6마리가 구제역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지난 2월 19일 영국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것으로 발표된 이후 유럽대륙에서 구제역이 보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당국은 마옌의 경우가 고립된 사례이기를 바라고 있으나 다른 사례가 확인될 경우 전국적으로 구제역 확산 우려가 현실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중부 오토 비엔 지역에서 구제역으

로 의심되는 증세를 보인 소 두마리는 검사 결과 15일 음성반응을 보인 것으로 나타나 당국이 안도하고있다.

장 글라바니 농업장관은 14일 프랑스가 지난 2월 영국으로부터 양 2만마리를 수입했으며 이 양들을 전국 80여개 축산농가가 사들였기 때문에 프랑스는 “구제역에 매우 취약하다”고 시인했다.

정부는 구제역 발생 확인 즉시 15일간 가축수출을 금지하고 도축장으로 옮겨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가축의 국내 이동을 중단시켰다. 정부는 2월 29일 이미 영국에서 수입된 양 2만마리와 이 양들과 접촉한 양 3만마리를 도축할 것을 결정했다.

당국은 구제역 사례가 나타나자 더 이상의 확산을 막기위해 서둘러 감염 여부가 의심스러운 가축들의 도축및 소각, 해당지역 봉쇄등의 예방조치를 취하고있다.

구제역이 본격적으로 퍼져나갈 경우 지난해 10월 이후 광우병 사태로 이미 곤경에 처한 프랑스 농업은 치명타를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농민들은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등 강력한 구제역 확산 방지조치를 취해줄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있다.

글라바니 농업장관은 14일 일간 르파리지앵



과의 회견에서 “구제역 예방백신은 1991년 이후 유럽에서 사용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그러나 구제역 확산을 막기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가축을 대상으로 대규모 구제역 백신접종을 실시하는 방안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광우병에 이어 구제역 발생은 관광대국인 프랑스의 이미지를 실추시켜 관광산업에도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3. 유럽구제역 피해 광우병보다 훨씬 클 수 있어

구제역이 유럽 축산업계와 경제에 미칠 피해는 이번 사태의 확산 및 지속 정도에 달려 있으나 구제역이 어느정도 확산되면 그 피해는 광우병보다 훨씬 클 것으로 우려된다.

이는 광우병이 소에 국한된 질병인 데 비해 구제역은 피해 동물이 소, 돼지, 양, 염소, 사슴 등 종류가 광범위하기 때문이다.

또 광우병의 경우 금수대상이 소 관련 제품에 국한되나 구제역은 모든 해당 동물의 육류 제품 뿐 아니라 우유, 치즈, 버터 등 낙농제품까지 금수대상에 포함돼 수출 타격, 농가 피해가 훨씬 커진다.

다만 광우병이 인간에 치명적인 데 비해 구제역의 경우 인체에 무해한 것으로 알려져 지난달 영국에서 구제역이 처음 발생한 이래 초래된 유럽 소비자들의 심리적 혼란은 광우병에 비해 훨씬 적게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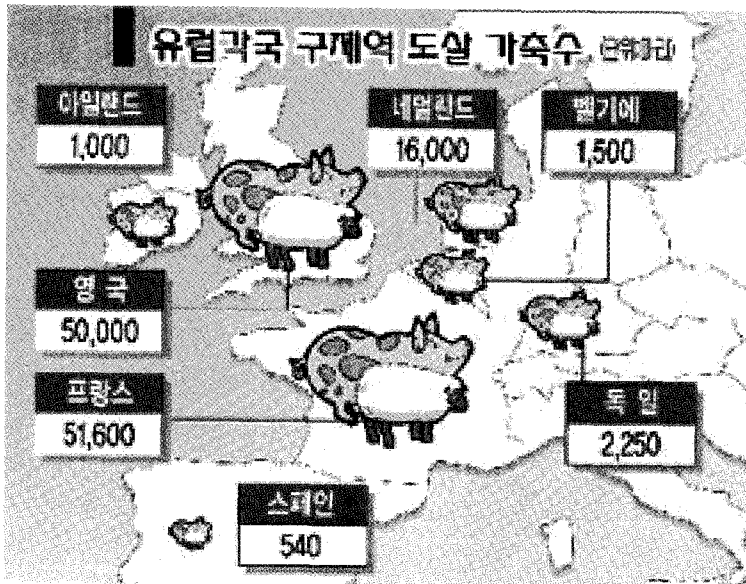
지난 3월 13일 프랑스에서 구제역이 확인됨에 따라 유럽 대륙에 마침내 구제역이 상륙했으나 아직 대륙 전반에 확산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피해는 현재로서는 제한적이다.

3월 16일 현재 지금까지의 피해 상황을 보면 영국이 2월 19일 이후 약 20만마리의 양, 돼지 등 가축을 도살, 폐기했으며 프랑스가 영국산 수입 가축 및 이들 가축과 접촉한 국내 가축 등 약 5만마리를 폐기했다.

네덜란드, 벨기에, 독일 등에서 폐기한 것까지 합하면 EU는 현재까지 약 30만 마리의 가축을 도살한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프랑스에서 구제역이 확인된 이후 세계 각국이 EU 전회원국에 대해 가축, 육류, 유제품 등 관련제품 금수조치를 발동해 앞으로 막대한 수출 타격이 예상된다.

특히 헝가리, 모로코 등 일부 국가는 곡물을 통해 구제역이 전염될 수 있다며 EU산 곡물에 대해서도 금수조치를 내렸



다.

이같은 금수조치가 지속될 경우 EU가 입을 축산물, 낙농품, 곡물 수출 타격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수치로 집계되지 않고 있으나 엄청날 것으로 예상된다.

· 게다가 구제역이 프랑스에 국한되지 않고 대륙 내 다른 국가로 확산될 경우 금수조치를 발동하는 국가 수가 더 늘어나고 수출 금지 기간도 길어져 수출 피해는 그 규모가 훨씬 커지고 기간도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럽대륙에 구제역이 상륙한 것으로 확인된지 이들이 지난 15일 현재 EU에 대해 금수조치를 내린 국가는 미국, 호주, 캐나다 등 90여개국. 구제역 확산시 대부분의 국가들이 EU 축산물에 대해 금수조치를 발동할 가능성이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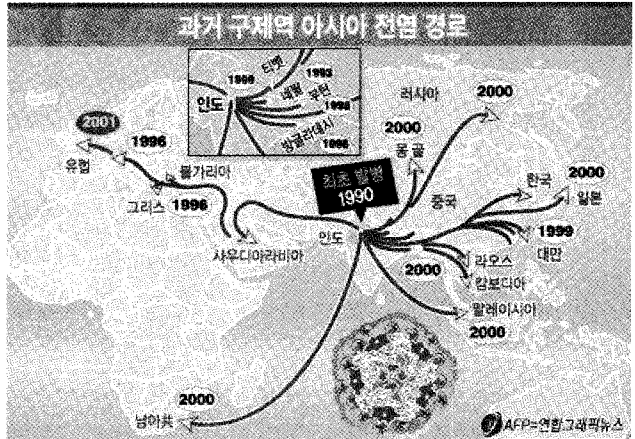
이렇게 되면 광우병으로 가뜩이나 빈사 상태에 빠진 유럽 축산업은 사상 최악의 위기 사태에 직면하고 이는 또다른 경제, 사회, 정치 혼란을 유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4. 남미의 구제역 현황과 대책

구제역의 확산과 더불어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등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 회원국들에게도 비상이 걸렸다.

브라질은 미국과 호수에 이어 세계 3위의 쇠고기 수출국가이고 아르헨티나 역시 세계 5위의 낙농국가라는 점에서 구제역 발생이 국가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난해 단 한 건의 발병건수도 기록하지 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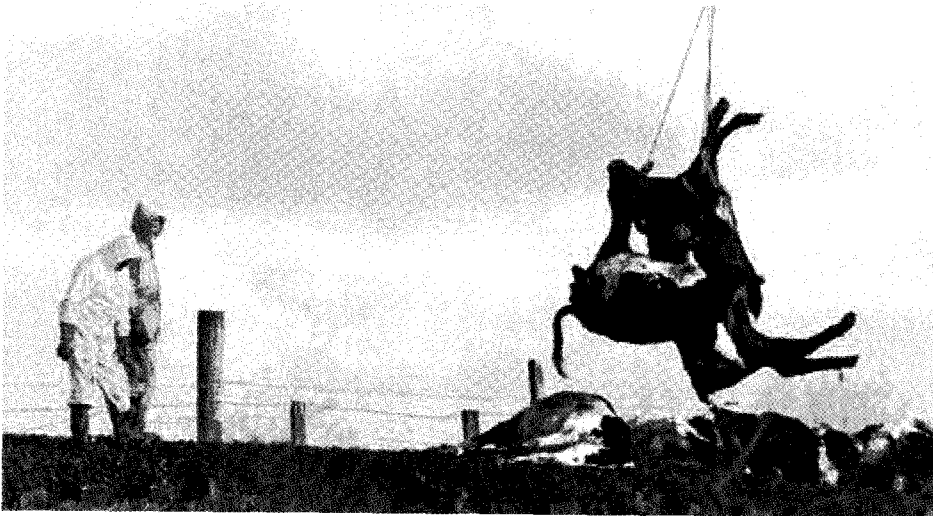


았던 아르헨티나는 3월 16일 현재 중부 부에노스아이레스주(州)에서 지난주 '상당수'의 육우가 구제역에 감염된데 이어 다른 주까지 확산되고 있다. 아르헨티나와 인접한 파라과이와 볼리비아에서도 구제역 발생이 확인됐으나 그 규모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아르헨티나 식품위생청(SENASA)은 금주 초까지만 하더라도 구제역 발생 사실을 숨긴 채 "구제역에 대비, 1천100만두의 가축을 상대로 방역작업을 펴고 있다"고 했으나 부에노스아이레스주에서 이 전염병에 감염된 소들이 발견되면서 뒤늦게 발병사실을 시인했다.

지난해 아르헨티나는 유럽연합(EU) 회원국들에 2억9천100만달러,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칠레에 1억3천400만달러, 브라질과 파라과이, 우루과이엔 2천900만달러 등 모두 6억달러 어치의 쇠고기를 수출했으며 구제역 파동이 가라앉지 않을 경우 막대한 타격이 예상된다. 일부에서는 벌써부터 4억5천만달러 가량의 피해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소와 양 등 약 1억6천500만마리를 사육하는 브라질에도 구제역이 발등의 불이기는 마찬가지.



◀ 구제역 가축의 매물

다행히 아직까지 구제역 발생사례가 나타나지 않아 우루과이 등과 함께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지만 아르헨티나와 접경을 이루는 국내 최대 방목지역인 리우 그란데도 술과 파라나 지방이 전염병의 영향을 받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모습이 다.



브라질 정부는 당장은 구제역의 피해가 없지만 지금과 같은 확산속도와 광우병에 뒤이은 소비자들의 불안심리로 볼 때 브라질도 예외가 될 수 없는데다 구제역이 어느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 아래 미주보건기구(OPS)에 요청, 금주말 파라과이 아순시온에서 남미 방역기관 대책회의를 갖기로 했다.

메르코수르 회원국들이 주축이 될 이번 회의에서 참가국들은 구제역에 대한 공동대처와 발본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5. 그 외 각 국의 구제역 파동 이모저모

■ 미국 농무부, 구제역 문의 무료전화 설치

미국 농무부는 3월 16일 국민들에게 구제역 피해의 심각성을 홍보하기 위해 구제역 관련 질문에 무료로 응답하는 긴급 직통전화를 설치하기로 했다.

농림부에 따르면 구제역 및 교역 전문가들

이 구제역에 대해 문의하는 국민이나 언론 매체, 산업종사자들에게 답변하게 된다.

농림부는 성명을 통해 '미국은 지난 1929년 이래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에 구제역 백신 공급**

이스라엘은 구제역이 발생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에 15만 회분의 구제역 백신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이스라엘의 야코브 오르 팔레스타인 담당자가 3월 16일 밝혔다. 오르는 이날 한 TV인터뷰에서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에 백신을 공급할 것이며 팔레스타인측이 제공하는 구제역 관련 정보들을 연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히크마트 자이드 팔레스타인 농업장관은 이날 요르단강 서안지구의 양들에게서 13건의 구제역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자이드 장관은 또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도시들을 봉쇄하고 있기 때문에 구제역 예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 **이란, 250만 회분의 구제역 백신 무료 공급**

최근 구제역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이란 당국은 250만 회분의 구제역 백신을 농부들에게 무료로 공급키로 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 백신은 해외에서 구입된 것이며 조만간 국내에 도착돼 농부들에게 무상으로 공급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란은 현재 광우병과 구제역 파동이 잇따라 유럽지역에서 발생하자 유럽산 육류의 수입을 금지한 상태이다.

■ **포르투갈, 육류 수입금지 조치 확대**

포르투갈은 3월 16일 구제역 예방을 위해 가축과 육류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를 확대했다.

포르투갈은 이날 성명을 통해 구제역 발생이 확인된 아르헨티나와 남아공, 스와질란드, 터키, 몽골, 대만, 키르기스스탄의 가축과 육류 제품에 대해 수입 금지 조치를 내렸다.

또 영국과 프랑스의 가축과 육류 제품에 대해서도 수입금지 조치를 내렸으며 국내의 투우 경기도 금지했다.

스페인도 프랑스에서 건너온 모든 차량들이 소독제가 뿌려진 깔개를 지나도록 했으며 기차 여행객들은 특수 물통이를 통과하도록 해 자신들의 신발을 소독하도록 했다.

■ **헝가리, 자국 육류 수입 금지에 항의**

현재까지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은 헝가리는 몇몇 교역국이 구제역 사전 예방 차원으로 자국의 육류에 대해 수입금지 조치를 내린 것은 불공한 행위라는 점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기할 방침이라고 고위 정부 관계자가 3월 16일 밝혔다.

피터 발라스 헝가리 외무부 차관은 크로아티아와 슬로베니아, 이탈리아가 헝가리의 육류 수입을 금지한 것은 불공정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발라스 차관은 '크로아티아와 슬로베니아는 구제역에 대해 과민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금지 조치 철회를 위해 WTO에 이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동**

[자료:연합뉴스, 국립수의과학검역원]